'오트쿠튀르'를 입은 와인… 伊 테누타 디 트리노로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238

2020년 빈티지는 카베르네 프랑 92%에 메를로 8%를 섞었다. 2021년 빈티지는 메를로의 비중이 60%로 더 높고, 카베르네 프랑은 나머지 40%다.

이 두 와인은 같은 와인일까, 다른 와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같은 와인이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와인 '테누타 디 트리노로'의 빈티지별 블랜딩 비율이다. 전설로 남은 안드레아 프란게티가 와인메이커로 이름을 알리게 된 그 와인이다.

비니 프란게티 그룹에서 와이너리 테누타 디 트리노로와 파소피시아로를 이끌고 있는 벤자민 프란게티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의 와인은 매년 그 해의 땅과 기후의 개성을 최대한 담아내려고 한다"며 "어떤 빈티지든 기분좋은 긴장감에 구조감과 복합미를 가지고 있어 '아 이게 트리노로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벤자민은 안드레아의 아들이다.

벤자민 프란게티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테누타 디 트리노로'와 '파소피시아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느낌적인 느낌'이 난해하게 느껴진다면 쉽게 옷 이야기로 풀어보자. 예를 들어 길을 지나가다 샤넬 스타일의 옷을 보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매년 선보이는 프랑스 오트쿠튀르 컬렉션에서 디자이너가 바뀌어도, 어떤 원단과 컬러로든 고유의 스타일로 샤넬은 샤넬임을 나타내듯, 세대가 바뀌고 숫자는 달라졌지만 트리노로 역시 트리노로였다.

지난 2021년 세상을 떠난 안드레아의 마지막 작품이 2020 빈티지다. 이번에 선보인 2021 빈티지는 아버지 없이 오롯이 아들의 손길만으로 만들어졌다.

먼저 테누타 디 트리노로가 만들어지는 포도밭을 봐야 한다. 토스카나 남부에서도 발도르차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안드레아가 근처를 여행하다 점토 토양을 보고 보르도 우안을 떠올리면서 와인 양조를 도전하게 됐다. 같은 보르도 품종이라도 토스카나에서 많이 심던 카베르네 소비뇽이 아니라 카베르네 프랑과 메를로를 심었던 이유다. 3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근방에 다른 와이너리라곤 찾아볼 수 없다.

배우 출신이었던 아버지의 직관과 감성에 공대 출신의 아들은 체계와 분석을 더했다.

20헥타르로 원래도 넓지 않은 포도밭을 벤자민은 50개의 작은 구획으로 나눴다. 독립된 구획은 철저히 각각의 컨디션에 맞춰 50번의 수확과 50번의 양조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50개의 와인을 가지고 테누타 디 트리노로의 이름에 맞는 블랜딩을 찾아간다. 테누타 디 트리노로에 쓰이는 구획은 보통 4~5곳, 많아야 6곳이다. 나머지는 세컨드 와인에 쓰인다.

그는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낸 오트쿠튀르처럼 마련된 50개의 재료를 가지고 빈티지를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드레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지향점만 있고 정해진 레시피가 없기에 2020과 2021 처럼 블랜딩 비율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벤자민은 매 해를 와인에 잘 담아내는 숙련된 장인인 셈이다. 스타일이 아니라 빈티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포도가 잘 익은 해는 알콜 도수가 높을 수 있지만 개의치 않는다. 블랜딩 과정을 통해 균형을 찾기 때문에 어느 것도 뾰족하게 튀지 않는다.

실제 '테누타 디 트리노로 2021'은 레이블에 알콜 도수가 15.5%로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면 전혀 몰랐을 정도로 균형감이 뛰어나다. 신선함과 산도가 모두 받쳐준 덕분이다.

벤자민은 "좋은 와인이란 바로 마시기도 좋아야 하고, 30년간 숙성 잠재력도 있어야 한다"며 "2021 빈티지는 힘도 있지만 속에 신선함을 감추고 있어 마시기도 편하다"고 말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군국화 가속… '사쿠라' 의미 변질

주제

강유원 지음/뿌리와이파리

'주제'는 철학자 강유원의 서평을 '책과 교양', '역사', '근대', '파시즘', '전쟁', '한국과 동아시아'라는 6개 주제로 묶어 펴낸 책이다. 가장 흥미로웠던 내용은 '상징의 정치화, 정치의 심미화'를 다룬 부분이다. 일제 군부가 '사쿠라(벗꽃)'에 대한 이미지를 조작해 '가미카제(전쟁 때 폭탄이 장착된 비행기를 몰고 자살 공격을 한 일본군 특공대)'를 양산해낸 과정이 자세히 기술돼 있는데, 지배 계층의 음침함이 혀를 내두를 정도다.

책에 따르면, 사쿠라는 군부에 의해 전사를 미화하기 위한 상징적인 도구로 변용되기 시작했다. 확 피었다가 지는 벚꽃처럼 젊은이들이 천황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하면, 천황이 참배 '해주시는' 야스쿠니 신사의 사쿠라로 환생한다고 약속한 것. 원래 야스쿠니 신사의 벚나무는 그 꽃의 아름다움으로 유신 때 목숨을 잃은 막부 타도파 지사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심었던 것이나, 군국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부에 의해 상징적 의미가 변질돼갔다고 책은 설명한다.

사쿠라의 의미 변용 과정에는 미화 혹은 미적 가치의 부가라는 수단이 사용됐으며 교과서, 창가, 유행가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권력은 교육을 통해 정치화된 상징을 보급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힘의 토대인 권력 관계를 은폐한 채 의미를 새겨 넣었으며, 거기에 다시 정당성을 부여했다.

벚꽃은 점차 '천황(=국가)을 위한 희생' 이데올로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흐드러지게 폈다 지는 사쿠라의 아름다움은 젊은이들의 죽음과 동일시됐고 이는 특공 작전에서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 책은 벚꽃의 상징적 의미에는 상징적 오인을 촉진하는 여러 요인들이 갖춰져 있다고 강조한다. 본래 사쿠라는 삶과 환생, 둘 다를 상징했고 특공대원 역시 이러한 의미장 속에서 벚꽃을 이해했다. 그러나 군부는 사쿠라에 의한 상징적 표상의 균형을 변화시켜 죽음을 전면에 내세웠다. 군부에게 벚꽃은 '천황을 위한 죽음'을, 특공대원에게 사쿠라는 '환생'을 의미했다.

저자는 "상징 기호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에서는 반드시 오인이 일어난다"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의미는 천차만별일 것이나 사회과학적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상징 기호들은 로맨틱한 열정에 호소할 뿐 '지금 여기, 나'의 구체적 삶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한다.

284쪽. 1만2000원.

/김현정 기자 hjk1@

밥 제솝 지음/지주형 옮김/여문책

국가론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국가는 사물인가, 주체인가, 사회적 관계인가, 아니면 정치적 행위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구성물인가. 또 국가는 영토적·시간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제도적·의사 결정적·작동적 자율성을 지녔는가, 주권 혹은 자율성의 원천과 한계는 무엇인가. 국가의 본질과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저자는 국가에 대한 경제·도구·기능주의적 신화를 해체하고, 국가의 형태, 국가가 속한 사회적 관계, 국가를 둘러싼 전략적 실천에 초점을 맞춰 마르크스의 국가론을 재구성한다. 저자는 이러한 전략 관계적 접근법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란 지배적 전략이 그 형태를 규정하는 사회관계임을 밝힌다.

544쪽. 3만3000원.

세계 감염 예고

마이클 루이스 지음/공민희 옮김/다섯수레

책은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까발려진 관료제의 한계와 제도적 비효율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르포르타주다. 저자는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것을 직감한 예견자들에 주목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혈투는 인간성과 사회 시스템, 권력의 취약성을 드러낸 전면전이었다. 의사와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바이러스의 동향을 예측하고, 신속한 검사법을 개발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냈다. 그들은 미국 정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무능에도 의지를 잃지 않았으며, 경직된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갔다. 팬데믹 사태를 막아낸 건 거대한 기관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한 이들의 신념과 결단이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384쪽. 2만4000원.

삐딱한 이방인, 불편한 시선

김희민 지음/아마존의나비

'삐딱한 이방인, 불편한 시선'은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인생의 3분의 2를 이방인으로 산 정치학자 김희민의 에세이를 묶은 책으로,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정치 상황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리더와 시민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저자는 "정치를 생활과 분리된 영역으로 여기면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치 환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채 무능한 정치를 탓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시민 스스로 정치 교육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2부에서는 우리 사회를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종교, 남북 관계, 존엄사라는 주제를 예리한 통찰로 분석한다. 3부에선 한국에서 이방인으로 살며 경험한 일상들을 일기와 낙서 형식으로 재기 발랄하게 그려낸다.

248쪽. 1만7000원.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계엄령, 北 이롭게 하고 東亞안보 악영향…주변국 도발 우려" 日언론 /사진 뉴시스

▲"한국 돈 안받아요"…태국서 원화 환전 거부 '계엄 후폭풍'

▲비트코인, 사상 처음으로 10만달러 돌파

▲국제앰네스티 "가자지구서 집단학살 확인" 보고서.. 이스라엘은 반박

▲유엔, 아프간 탈레반정부에 여성교육과 의료훈련 금지 재고 권고

▲美, 중국 수출금지 안티몬 20년 만에 채굴 허가 /사진 뉴시스